

# 더민주·국민의당 3곳씩 오차범위 밖 우세...4곳은 접전

## KBS·KBC 전남 10개 선거구 여론조사 분석

박지원·황주홍·이개호 등 현역들 여유있게 앞서

우윤근·정인화, 송대수·이용주 1%P 차 초박빙

순천 이정현, 더민주 노관규 후보 5%P 차 추격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방송사가 전남 10개 선거구의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각각 3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곳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어서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C 광주방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10개 선거구별 유권자 500명씩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더민주는 ▲순천(노관규)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 ▲영암·무안·신안(서삼석)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이상 앞섰다.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이 출마한 ▲목포(박지원) ▲여수(주승용) ▲고흥·보성·장흥·강진(황주홍) 선거구에서 오차범위 이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을 끄는 순천 선거구에서는 더민주 노관규 후보가 40.5%로, 호남 유일의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30.5%) 후보보다 10%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당 구희승 후보는 10.4%였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더민주 이개호 후보가 39.2%로, 국민의당 강형욱(24.6%)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영암·무안·신안은 더민주 서삼석 후보가 37.6%의 지지율을 얻어 24.8%를 얻은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를 12.8%포인트 앞서 나갔다.

더민주는 ▲나주·화순(신정훈) ▲해남·완도·진도(김영록) 선거구 2곳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후보와 윤영일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곡성·구례에서는 더민주 현역의원인 우윤근 후보가 34.0%의 지지율로, 국민의당 정인화(33.0%) 후보를 단 1%포인트 차로 앞서 최접전 지역으로 떠올랐다.

원외인사들의 맞대결인 여수갑에서는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가 30.7%로, 더민주 송대수(29.7%)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박빙 승부를 예고했다.

국민의당 후보들은 현역의원들이 나선 목포(박지원)와 여수(주승용), 고흥·보성·장흥·강진(황주홍)에서 큰 차이로 우세를 보였다.

목포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가 44.2%로, 더민주 조상기(13.5%) 후보를

### ◆목포



### ◆여수갑



### ◆나주·화순



### ◆담양·함평·영광·장성



### ◆고흥·보성·장흥·강진



\* KBS 광주방송은 1~3일 조사, 5일 발표  
KBC 광주방송은 3월30일~4월2일 조사, 5일 발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KBS 광주방송총국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순천 선거구에서 더민주 노관규(38.0%) 후보가 새누리당 이정현(33.1%) 후보를 앞섰다. 다만 두 후보간 격차는 더 좁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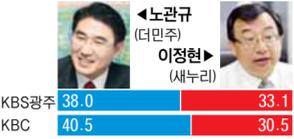
영암·무안·신안에서는 더민주 서삼석(34.2%) 후보가 국민의당 박준영(32.3%)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49.5%) 후보가 더민주 조상기(14.3%) 후보를,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국민의당 황주홍(45.5%) 후보가 더민주 신문식(30.2%) 후보를 크게 앞섰다.

순천 이정현, 더민주 노관규 후보 5%P 차 추격

목포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49.5%) 후보가 더민주 조상기(14.3%) 후보를,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국민의당 황주홍(45.5%) 후보가 더민주 신문식(30.2%) 후보를 크게 앞섰다.

### ◆순천



### ◆여수을



### ◆광양·곡성·구례



### ◆해남·완도·진도



### ◆영암·무안·신안



황주홍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더민주 신문식(24.6%) 후보를 2배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KBC 광주방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4일간 전남 10개 선거구의 유권자 각 500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각 선거구당 유권자 500명씩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목포 등 3곳은 ±4.3% 포인트, 순천은 ±4.4% 포인트이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50) 나비

젊은 날엔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다. 젊음의 에너지와 패기로 분주했던 그 날들은 꽃보다 예쁘고 마음 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던가. 자연에 마음 두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것 일게다. 노랑꽃들이 분홍 꽃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릴레이로 피어나는 봄꽃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이 축복이라 여겨진다.

일호 남계우(1811~1888)의 '호접도'(부분)를 보면 이 한 점의 그림이 온 천하에 가득한 봄날의 기운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듯하다. 우리의 눈길과 영혼을 순하게 변화시켜주는 봄별, 정원 한 모퉁이에 피어있는 꽃에 앉아 꿀을 빨고 있는 나비, 한껏 날개를 펼치며 뿜내고 있는 또 한 쌍의 나비들 덕에 화가가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화폭

## 새 봄의 전령사... 전생이 채향사였나

가득 나비를 가득 채운 것은 어딘가에 꽃 한 무더기가 더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난지시 일깨워주는 화폭이다.

19세기 후반에 화가로 활동했던 남계우는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평생을 초야에 묻혀 나비 그림만 그렸다고 한다.

나비를 잘 그려 아예 '남나비'라고 불리기도 했던 남계우의 나비 그림은 나비가 꽃의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자 평생의 연구 대상이기도 했다. 극사실에 가까운 정도로 정밀하게 나비를 그렸던 '남나비'는 실제로 나비를 정밀로 좋아했고 나비를 제대로 묘사하기 위해 온 열정을 바쳤다. 그가 그린 나비는 후대 생물학자들에게 학문적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을 정도다.

'남나비'는 새봄의 전령사인 나비를 맞이하는 마음을 애뜻한 시로도 묘사했다. "따뜻한 햇볕 산들바람 날씨 좋은데/부드러운 더듬이 비단 날개로 천



남계우 작 '나비'

천히 맴도네/전생이 채향사였음을 알겠으니/작은 꽃 숨은 풀까지 뒤적이며 날아오네' <남계우 시 '영접(詠蝶)'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선거구 재획정으로 소지역주의 심화

### 여론조사로 본 전남판세 변수

### 해남·완도, 고흥·강진 등 3~4곳, 당락 영향 클 듯

제20대 총선에서 전남 의석수는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다. 별개였던 고흥·보성 선거구와 장흥·강진 선거구가 합쳐져 4개 군이 1개 선거구로 묶였다.

간·을 선거구로 나뉜 여수, 독립 선거구인 목포, 순천을 뺀 6개 선거구가 2~4개 시·군으로 이뤄졌다. 후보의 고향을 기준으로 한 소지역주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BC 광주방송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지역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구들이 눈에 띄었다.

4개 군이 1개 선거구로 묶인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 장흥·강진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가 강진과 장흥에서 77.4%, 54.7%의 지지율을 각각 얻은 반면, 더민주 신문식

후보는 각각 10.0%, 22.4%로 저조한 지지율을 얻었다.

신 후보의 고향인 고흥에서도 황 후보가 37.6%로, 신 후보(32.8%)의 지지율을 앞섰다. 이같은 소지역주의가 작용하면서 황 후보가 신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발표된 KBS광주방송 여론조사에서는 더민주 신문식 후보가 고향인 고흥에서 43.1%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당 황주홍(32.3%)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황 후보의 지역구인 강진(20.0%)에 고향인 더민주 서삼석 후보가 무안에서 53.7%의 지지율을 올린 반면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는 14.3%를 얻는데 그쳤다.

반면 박 후보는 고향인 영암에서 41.1%의 지지율을 얻어 23.5%의 지지를 얻은 서 후보를 앞서는 등 소지역주의가 확연

하게 드러났다.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더민주 김영록 후보가 고향인 완도에서 47.6%로 국민의당 윤영일(20.5%) 후보를 2배 이상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고향인 해남에서 34.7%로, 김 후보(23.9%)를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이 선거구 또한 해남군 유권자 숫자가 많다는 점에서 선거일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KBC광주방송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4일간 각 선거구 유권자 500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KBS광주방송총국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선거구당 유권자 500명씩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 포인트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

##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습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꼭 투표하세요!

광주광역시·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변경된 선거구

동구남구갑선거구-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구남구을선거구-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북구갑선거구-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여수시갑선거구-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민덕동

순천시선거구-순천시 일원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사전투표: 4월 8일(금)~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방문하시면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